

유적지 순례 108

도침의찬성사(都僉議贊成事)현(鉉)자손과 규헌공(葵軒公) 주(鑄)자손들



△17세 묘소(용인시 남사면 원정리)



△18세 원 묘소(평택시 진위면 동천리)



△17세 보, 18세 현묘비



△19세 확 묘소(화성시 봉담읍 덕우리 산5번지)



△확의 신도비와 묘정비



△20세 심 묘소(화성시 봉담읍 덕우리 산7번지)



△21세 휘 묘소(선교 묘소 입구)

지난호는 현성군 용(鑄)의 아들 현성군 휘 정주(定柱)의 자손들을 소개하였다. 이번호는 형(衡)의 차자 현(鉉), 4자 균(鈞), 5자 주(鑄)의 제 자손을 소개한다.

16세 도침의찬성사(都僉議贊成事) 현(鉉)의 자손

공의 아들은 상호군(上護軍) 경(京)과 효충(孝忠)이 있으며 손은 군수 효근(孝勤)이고 증손은 맹린(孟麟), 중린(仲麟), 숙린(叔麟), 계린(季麟)을 두었다. 중린(仲麟)은 세조 3년 별시문과 급제하여 성종 4년 예빈시부정을 지내고 성종 6년 선농제(先農祭)에서 기용령을 하고 성종 7년 광주목사로 부임하였다.

성종 14년 당상관에 오르고 성종 16년 예조참의(禮曹參議), 19년 대사간(大司諫), 23년에 춘천부사로 나갔다. 그러나 후사가 없고 묘소가 알 수 없다.

맹린(孟麟)은 선(選), 적(迪), 우(遇) 세아들을 두었으며 선은 감역(監役)을 지냈으며 현손 덕근(德根)은 인조 13년에 출생하여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에 오르고 숙종 41년에 졸하니 수 81세였다. 묘소는 괴산군 소수면 옥현리에 있다.

16세 양효공(良孝公) 호(鑄)는 익대공신에 녹훈되고 관후 덕부사에 이르렀다. 아들 괴정공(槐亭公) 담(澹)은 우왕 6년 문과 급제하고 태종 5년 경기도 관찰사(觀察使), 세종 1년 황해도 관찰사가 되고 세종 3년 자헌대부(資憲大夫) 전주부윤(全州府尹)이 되었다.

16세 화산군(花山君) 균(鈞)과 17세 문순공(文順公) 홍(弘)

균(鈞)은 공민왕 19년 공부상서(工部尙書), 조선 개국 후 참찬문하부사(參贊門下府事) 화산군(花山君)에 봉해졌다. 아들은 홍(弘)이다.

문순공(文順公) 홍(弘)

시호는 문순(文順)이다. 문순공은 공민왕 9년 출생하여 우왕 8년 문과 급제하여 춘추관 검열이 되었다. 조선조 태종 2년에 장녀가 가례(嘉禮)를 치르고 태종의 후궁 의빈(懿嬪)이 되자 가정대부(嘉靖大夫) 영가군(永嘉郡)에 봉해졌다. 태종 4년 첨서승부사가 되고 태종 7년 진헌사(進獻使)로 명(明)나라에 가고 태종 10년 지의정부사(知議政府事)가 되어 시은사(謝恩使)로 명에 다녀왔다.

태종 14년 관한성부사(判漢城府事), 태종 16년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 세종 원년 예조판서(禮曹判書)에 오르고 12월에 영접사(迎接使)로 의주에 나가 사신을 맞았다. 세종 2년 영가군(永嘉郡)이 되고 12월 진하사(進賀使)가 되어 명에 다녀오고 세종 5년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가 되고 이어 제조(提調)가 되고 세종 15년 유관 등과 함께 기영회(耆英會)를 만들었다.

세종 28년 졸하니 수 87세였다. 공은 성품이 온아하고 사람을 공손히 접대했으며 전서(篆書)와 예서(隸書)를 잘 써서 문묘(文廟)의 비문도 썼다. 시호를 문순(文順)으로 내리니 학문에 힘 쓰고 문기를 좋아하여 문(文)이고 현인에게 유순하고 남을 사랑하여 순(順)이다.

유고로 쌍당집(雙塘集)을 남겼는데 찾지 못하였다. 묘소는 경기도 과천시 적성 고을 서쪽에 있는데 실전하였다. 아들은 사간(司諫) 강(康)이며 증손 송조(崇祖)의 후손들이 있다.

16세 규헌공(葵軒公) 주(鑄)와 자손들

주(鑄)는 우왕 9년 여주 신록사 장경각(藏經閣)에 글씨를 썼는데 봉익대부 관전교시사 진현관(進賢冠) 제학(提學)으로 자서하였다.

조선조에 도평의사사(都評議司事)가 되었으며 태조 3년 졸하였는데 직은 밀직제학(密直提學)이다. 졸기에 성품이 바르고 성실하였으며 충주와 황주목사가 되어 혜정(惠政)을 베풀었으며 내직으로 지신사(知申事) 시에 성균관 시관(試官)을 하였다. 묘소는 경기 풍덕군 마포의 냉정동에 있다.

아들은 사간공(司諫公) 훈(薰), 증(增), 회정공(檜亭公) 보(土保)를 두었다.

사간공(司諫公) 훈(薰)

고려 우왕 9년 문과급제하였다. 조선조 태종 7년 중부시 부령으로 중국의 유민을 색출하는 일로 여러도에 파견되었다. 태종 9년 직예문관으로 춘추관주관을 겸하고 10년에 태조실록편찬에 참여하였다.

아들 연(然)과 손자 비(備)는 관관이고 증손 민(愍)은 성종 11년 포천현감을 지내고 연산군 10년 옥천군수에 제수되었으며 12년 풍기군수로 나갔다. 6세손 우(遇)는 선조 6년 실록에 강계관관으로 제수된 기록이 나오는데 이전에 흥양현감으로 혜정(惠政)을 베풀었다. 선조 11년 선천군수를 지냈다.

증(增)

공양왕 1년 문과급제하여 주서를 지냈다. 아들 석(碩)은 정랑이고 손 충(仲)은 군수이며 증손은 윤희(允亨)이다.

6대손 경눌(景訥)은 선조 1년 출생하여 무과(武科)하고 부사에 이르렀으며 인조 28년 81세로 졸하니 묘소는 황해

도 신천군 용진면 구월산이다.

회정공(檜亭公) 보(土保)

부친 규헌공 졸기에 공은 문과급제한 것으로 나온다. 태종 11년 예조정랑을 지내고 17년 양녕대군이 곡선의 첩을 궁중에 들인 일로 그의 생질서인 공이 연루되어 추국을 받고 가산이 몰수되고 동래로 유배되었다. 뒤에 세종이 즉위하여 억울함을 풀어주고 관작을 회복시켰으며 가선대부 예조참판(禮曹參判)겸 동지중추관사(同知中樞館事)로 추증되었다. 묘소는 용인시 남사면 완정리 상촌에 있다. 아들은 매은공(梅隱公) 휘(煇)과 후(休)를 두었다.

18세(世) 매은공(梅隱公) 휘(煇)

사재감 직장을 지내고 3남 정순공이 귀히 되어 보조공신 승정대부 의정부좌찬성(議政府左贊成)으로 추증되고 현북군(玄福郡)에 봉해졌다. 묘소는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동천리 산 237번지에 있다. 후사는 현감 국(國), 확(擴), 찬(攢), 규(揆) 포(抱) 5형제와 1녀를 두었다.

장자 국(國)은 진사 목(沃), 흥(洽), 한(漢) 3형제를 두었는데 흥(洽)은 숙부 정순공(靖順公) 찬(攢)으로 양자가 되고 현감이 되었다.

19세 대사성(大司成) 확(擴)

차자 확(擴)은 효군을 지내고 세조 14년 익대공신에 녹훈되었다. 기첩에는 동지성균관사 대호군이다. 묘소는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덕우리 산5번지에 있다.

아들 심(心)은 진사로 묘소는 화성시 봉담읍 덕우리 산7번지에 있다. 손 휘(揮)는 선무랑 직감이고 묘소는 선고묘 아래에 있다. 증손은 통덕랑 영(營)이고 화성시 봉담읍 덕우리 산5번지 증조묘 계하에 있다.

3자 정순공(靖順公) 찬(攢)

공은 세종 12년 출생하여 세조 8년에 사마시하여 의서 습독관(醫書習讀官)에 보임되었다. 공은 의술이 좋아 사헌부 감찰에 특제되고 세조 13년 종친부 전적검 교수가 되니 왕손의 병을 치료하였다.

예종 원년 첨정으로 익대공신 3등에 녹훈되고 예종 1년 가선대부 현북군(玄福君)에 봉해졌다. 성종 8년 가정대부(嘉靖大夫)에 오르고 한계희, 임일준과 함께 의서유취(醫書類聚) 30권을 완간했다. 그해 자헌대부(資憲大夫) 행의흥위호군(行義興衛護軍)이 되고 성종 10년 정헌대부(正憲大夫)가 되고 성종 14년 약방제조(藥房提調)가 되었다.

그해 6월 공조판서(工曹判書)에 오르니 의술만으로 6판서의 자리에 올랐다 하여 의론이 일었으나 임금의 신임이 두터워 5년간 판서의 직을 연임하였다. 성종 18년 재직 중 졸하니 수 58세였다. 임금이 조회를 폐하고례장을 관례대로 해주었다.

시호를 정순으로 내리니 몸을 공손히 하고 말이 적은 것이 정(靖)이요 인자하고 온화하여 고루 복종시킨 것이 순(順)이다. 졸기에 증족과 성심으로 화복하여 노비가 약을 물음지라도 마음을 다해 보살피어 살린자가 많았다고 하였다. 묘소는 미상이고 후사는 없어 백서 국(國)의 제 2자 흥(洽)을 계자로 하였다.

18세 후(休)와 19세 발(拔)

회정공(檜亭公)의 차자 후(休)는 소시부터 학업을 좋아하고 효심이 지극하여 여묘(廬墓)를 하였다. 형조참판에 추증되고 묘소는 평택시 진위면 동천리 산 236번지(벌목산-매은공 묘소 입구 우측 산록)에 있다. 후사는 장자 추(推) 현감, 차자 발(拔) 현감, 3자 탁(擢) 사직이다. 추(推)는 간(衍), 율(律), 순(循)을 두었고 순(循)의 현손 정진(廷振)은 가선대부이다. 순(循)부터 4대의 묘소가 진위면 봉향산에 있다고 하는데 필자가 찾지 못하였다.

차자 발(拔)은 12세에 부친상을 당하고 장성해서 효성이 지극하여 모친을 봉양하면서 학문에 뜻을 두어 과천현감을 지내고 3품에 이르렀다. 묘소는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동천리 벌목산 입구 우측에 과천현감 발 후복과 묘지비가 있어 필자가 묘역을 찾아 산 우측으로 돌아가니 대지 1천여평에 위에 현감공 묘소가 있고 계하에 후손들 묘역을 조성하면서 좌측으로 후복과 문중계도파를 10m 대리석에 새겨 놓았다. 아들은 세득(世得), 세복(世復)을 두었다.

세득(世得)의 자 규(規)는 사직이고 손은 황(晃), 증손 계황(繼煌)은 절충장군이며, 현손은 광필(光弼)이고 묘소는 예천 보문면 덕봉산 선영에 있다. 5대손은 휘일(輝一)이다.

세복(世復)은 가첩에 문과하여 경상감사를 하였다하나 고증이 안 된다.

세복의 아들 구(矩)는 사직이며 손은 창(昌) 좌랑과 옥(勳)이고 증손은 계형(繼衡), 계윤(繼尹), 계흥(繼興), 계현(繼賢)무과 봉사이고 현손은 덕흥(德興)과 득홍(得洪), 여명(汝冥)통훈대부 장악원정, 여연(汝淵), 여정(汝淸), 여진(汝津), 여제(汝濟)가외대부, 여해(汝海), 위(緯), 윤(綸), 신(紳), 급(給)이다. 평택시 진위면 동천리 선영에 20세 세복, 21세 구, 22세 옥, 23세 계형, 24세 여명, 위의 묘소가 있다.

(감수 / 권혁동, 편집 / 죽당 권경석)



△22세 영 묘소(봉담읍 덕우리 산5번지) 증조 확 묘소 계하



△18세 후 묘소(진위면 동천리 산 236번지)



△19세 발(후복파) 묘지입구를 표시하는 표석



△18세 후, 19세 발묘비



△후복파 묘역 길 우측으로 돌아 숲 후면에 19세 발 묘소가 있다.



△19세 발 묘지(진위면 동천리 벌목산)



△발 묘지석과 후손 묘터